

해외 언어 · 문화연수 후기

연수구분	2023학년도 하계방학 단기 해외 언어·문화연수
연수기관	캐나다 Selkirk College
연수기간	2023. 7. 3. ~ 2023. 7. 28.
연수자	컴퓨터공학과 심호승

연수후기

제가 다녀온 Selkirk College는 Nelson이라는 소도시에 있고, 4주 간의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오전에는 스피킹 수업을 들었고 오후에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는 세미나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사회문화 활동이 진행됐습니다.

가기 전까지는 외곽에 있다고 해서 걱정을 조금 했었는데 지내면서 걱정한 것과 달리, 오히려 더 좋은 기회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도시라 주변에 있는 다른 도시들과 다르게 인프라도 좋았고 교통도 처음에 교통 카드를 어디서 발급받는지 몰라 헤맸던 걸 빼면 크게 불편한 점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특히 시내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캐나다인이었기 때문에 영어에 익숙해지기 쉬운 환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영어를 말해야했고 또 영어로 듣다보니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익숙해지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발음도 교정하게 됐습니다.

수업은 선생님 네 분이 한 반씩 총 4개의 반으로 진행됐습니다. 저희 반은 관용어구와 일상 회화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아침에 등교하면 하루는 2명씩, 하루는 4~5명씩 큰 그룹으로 서로서로 어제 방과 후에 뭐를 했는지, 오늘은 어떤 걸 할 건지, 주말에는 뭘 할 건지 등을 짧게 영어로 얘기했습니다. 그 후 관용구에 대해서 배우고, 배운 걸 바로 활용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떨 땐 연극을 직접 만들어서 연기했었고 어떨 땐 게임을 통해 복습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후 수업은 세미나와 사회문화 활동이 있었는데, 세미나의 경우 오전 수업의 선생님들께서 각자 하나의 과목을 맡으시고 첫 날 오리엔테이션 때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것으로 진행됐었습니다. 저는 스톱모션 애니메이션과 간단한 편집에 대해서 배웠는데, 가장 스피킹과 동떨어진 분야였지만 파트너와 함께 제작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서로 소재를 공유하고, 어떻게 찍고 편집할지에 대해 의논해야 했기 때문에 계속 영어로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제가 흥미가 있어서 선택하긴 했지만 갈수록 발음을 더 잘하고 싶었어서 약간 후회가 남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결국 듣고 말하는 연습을 하려고 간 거니까 다른 분들은 발음 수업 쪽으로 듣는 걸 추천드려요.

대학 선생님들 모두 정말 멋있고 친절하신 분들이었고, 특히 저희 반 선생님한테 정말 이것저것 다 여쭙보고 세미나 관련해서 도와주실 수 있는지 말씀드린 적도 몇 번 있었는데 늘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국제 학생 담당자 선생님께서도 첫 날 이후로도 꾸준히 찾아오셔서 저와 다른 대학교 학생들 신경써주셨어요. 마지막으로 국제교류센터 직원 분과 센터장님도, 연수 신청을 정말 늦게 해서 시간이 촉박했었는데도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처리해주셔서 이런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첫 자취였고 첫 연수였어서 준비하면서도, 가면서도 정말 불안했었는데 일주일 보내고 나서 정말로 연수 신청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어 실력도 조금 늘고, 가장 중요한 자신감도 얻고,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지내보는 경험도 해보고.. 저 말고 다른 학생 분들도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추후에 신청할 학생 분들이 만약 이 글을 보신다면, 저는 너무 만족스러워서 4주는 짧은 느낌이었어요. 적응하자마자 돌아온 기분이라서, 만약 있다면 6주 정도 프로그램을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연수사진

